

GTX를 중심으로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국제협력 본격화

- 5월 3일 오후, 중남미외교단(GRULAC) GTX-A 시승식

... 미래형 자족 신도시로 개발 중인 동탄 신도시 현장도 패키지 홍보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3일(금) 주한 중남미외교단(GRULAC)* 소속 외교관을 초청하여 GTX 시승식 행사를 실시한다.

* 파나마, 멕시코, 페루, 파라과이,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 및 카리브연안 지역의 3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가모임(Group of Latine America and Caribbean)

○ 시승식은 중남미외교단 오찬 간담회(4.3)에 참여한 각국 대사들이 GTX-A 개통식(3.30)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명함에 따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 현장 방문을 즉석 제안하며 이루어지게 되었다.

○ 시승식은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GTX 사업의 해외홍보와 한-중남미 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승식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주관하는 ①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②GTX 사업소개, ③GTX 홍보관 관람, ④GTX 차량 홍보, ⑤GTX 시승식 순으로 진행한다. 시승식 종료 후에는 ⑥동탄 신도시 현장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 GTX-A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GTX 사업 추진배경, 추진경위, 개통 효과 등 GTX 사업 전반을 상세 소개한다.

○ 도심구간 소음 및 진동 최소화를 위해 적용된 TBM(Tunnel Boring Machine : 터널굴진기) 공법의 성공적 적용 등 안전사고 없이 적기 관통을 달성한 우리의 우수한 대심도 터널 공사 역량도 중점 홍보한다.

○ 철도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에서는 GTX-A 차량에 적용된 각종 첨단 기술*을 토대로 KTX 개통 이후 급격한 기술발전을 이룩한 국내 철도 차량 제작기술에 대해서도 홍보한다.

* 경량 알루미늄 차체, 공기정화장치, 친환경 불연 카펫, 대형 LCD 표시기 등

- 또한, 동탄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래형 자족 신도시로 조성 중인 동탄 신도시(면적 : 약 35km²) 현장을 상세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대규모 택지개발 경험과 공공주택 사업을 홍보한다.
-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주한외교단 GTX 시승식 행사를 통해 도심구간에 적용된 TBM 기술경험을 비롯, 철도차량 및 시스템 등 우리나라 선진 철도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겠다”며,
 - “이미 여러 국가에서 대심도 철도사업 및 TBM 공법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GTX 사업의 추진 경험을 토대로 건설·인프라 및 신도시 분야 국제협력도 철도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중남미외교단(GRULAC) 외에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에서 활발한 국제협력이 진행 중인 동남아시아국제연합(ASEAN), 걸프협력회의(GCC) 소속 국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시승식 행사(총 3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총괄>	철도국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책임자	과 장	서정관	(044-201-3964)
		담당자	팀 장	육인수	(044-201-3963)
		담당자	서기관	이상욱	(044-201-3881)
		담당자	주무관	안남현	(044-201-3978)
<협조>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	책임자	과 장	박동주	(044-201-3434)
		담당자	사무관	김정민	(044-201-3455)
<협조>	국제협력통상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김희천	(044-201-4563)
		담당자	사무관	구은혁	(044-201-3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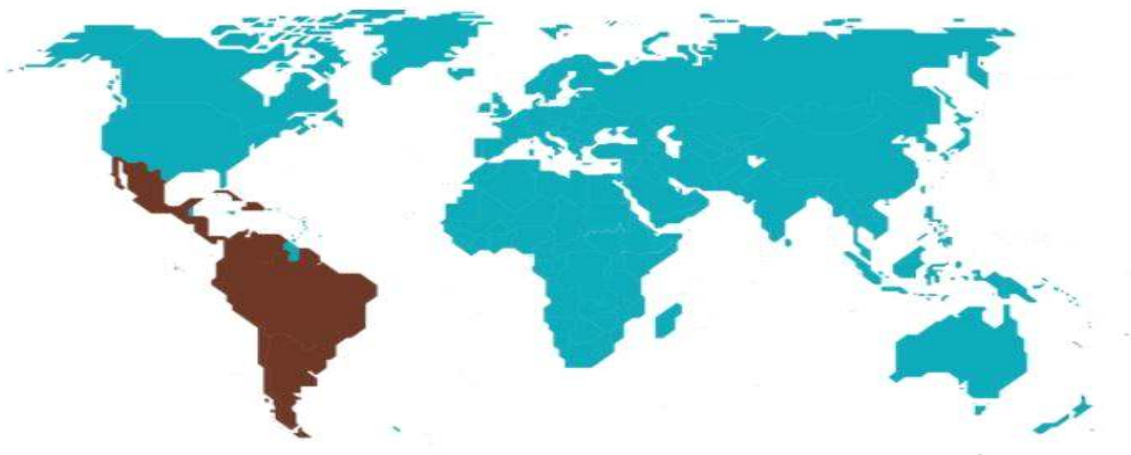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중남미외교단 개요(Group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 중남미(20개국)와 서인도제도(13개국)의 일부 섬 33개 회원국으로 구성, 5개의 유엔 지역 그룹 중 하나로, 전체 유엔 회원국의 17% 차지
- (정식명칭) 라틴 아메리카·카리브 국가 공동체
(Group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 (설립목적)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역내 공통이슈에 대한 해결 모색

□ 중남미 외교단(GRULAC) 33개국 현황



	회 원 국 (33개국)
중남미 (20개국)	가이아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멕시코,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서인도제도 (13개국)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바하마, 쿠바,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 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 한국에 대사관이 위치해 있는 국가(18개국) 표기